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5년



알버커키 다운타운과 I-40 하이웨이

공지사항

뉴멕시코한인회 공지사항

****영사업무 안내:** LA총영사관에서는 이 곳 한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순회영사 업무를 9월 24일, 목, 10시-14시, 한인회관에서 갖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프린트하셔서 작성해 오시면 훨씬 수월하시겠습니다.

****김치 페스티발:** 매 해마다 있는 우리 한인회의 큰 축제인 김치페스티발이 오는 11월 7일, 토, 10:30-3:30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한국 먹거리 문화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인회 예무단 모집:** 한인회에서는 가무에 관심이 있으신 성인 남,녀를 모집합니다. 목적은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 그들의 말벗으로 춤과 노래를 선 보임으로서 그들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싶고, 또 한, 한인회에 행사 때마다 우리 한국을 노래와 춤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김영신(321-7695, nmkoreancommunity@gmail)

2015년 9/10월호 내용

공지사항 한인회 공지사항	: 1
한인회소식 한국학교/ 어버이회	: 2
한인회 소식 지난 한인회 행사	: 3
뉴멕시코 소식 올해의 모범 변호사상 노영준씨	: 4
광복 기념 백일장 North & South Korea/ 광복단상70주년을 기념하여 최혜민, 박 에스터	: 5
칼럼 감사의 글 김기천	: 6
수필 다섯가지 덕을 가진 닭 이정길	: 7
생활정보 행복한 미국생활(4)	: 8
뉴멕시코소식 A-1 Market 이전	: 11
특별기고 온두라스와 한인사회 강영신	: 12
인터뷰 48년만의 사제의 만남	: 14
아리조나 타임즈 뉴멕시코판 개설	: 15
뉴멕시코 소식 2016년 종이접기 달력출간	: 16
종교기사 한국교회의 현실과 희망 손봉호	: 17
광고 뉴멕시코 교회안내	: 19
광고 뉴멕시코 한인업소 안내	: 20

뉴멕시코 통합 한국학교 교장 김 레베카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께 먼저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번 2015년 가을학기를 시작으로 한국학교 교장으로 일하게 된
김 레베카입니다.

한국학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민 온 1881년 El Monte, California 가브리엘 장로교회에서부터입니다. 그 당시 제가 배운 것은 한국어 그리고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한인 2세는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 앨버커키에서 지난 2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학교에 몸을 담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8년 갈릴리 장로교회 (유용호 목사)에서 '한국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사/교장으로 일하면서 약 80명까지 등록된 학생들과 더불어 뉴멕시코에 한국학교가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3년 최진 한인회 회장님의 제안으로 한국학교 장소가 갈릴리 교회에서 한인회관으로 옮겨졌으며 한인회와 더불어 나가는 통합 한국학교가 명실공히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교장으로 일하면서 깊은 체험이 있었다면 한국학교에 등록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 역시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미국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재정비하여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 1) 한국학교가 한인회 안에 설립되어 있음을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 2) 한국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 한국어만이 아닌 한국 정서, 문화 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로스앤젤레스 한국 교육원'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아울러 전달받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사들과 더불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차세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함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한인 전체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인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레베카 교장 드림

한인회 어버이회

안녕하세요!

한인회 어버이회가 새롭게 발을 내디딘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활성화 되고 있음을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립니다. 안교정, 양익환, 조문성, 이우정, 김경숙, 현순덕, 다이엔, 김현지, 김두남, 정명자 (산타페 Kelly Liquors), 그리고 신우철 가족분들께서 기부해주셨고 그외 상공회 회장 문상귀 씨 신경일 목사님 내외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주씩 맡아 대접해 주셨으며 김영신 한인회 회장님께서 자택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녀녀 권사님, 김경숙, 박연복, 최신옥, Kim's Market, 아리랑 Market, A-1 Market, 주님의 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카톨릭 공동체, 산행팀 A, 김철, 김태원, 김순례, 김진아 등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물질과 봉사로 후원해 주셨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인회 어버이회가 활성화 되려면 통역, ride등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겠기에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꾸준히 계속 한 주에 하루 몇시간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 달에 한번 혹은 분기별로 봉사를 시도해 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이 도와 주시면 여러 부분 더 보완되어 더욱 나아지는 한인회 어버이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신 단체와 개인 모두에게 지면을 통해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자드림



한인회 소식 / 행사

**새로이 이사분들이 아래와 같이 선정됐습니다.

이사장: 소피아 B.

부이사장: 민명희

이사진(무순): 최영혜, 이옥주, 신동완, 유경준, 조재신, 조규자, 김영신



8월 15일 70주년 기념식이 한인회관에서, 토요일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시대의 슬라이드 감상과 광복을 체험한 두 어르신의 체험담으로 다과와 함께 가졌습니다.

**한인회관이 새로 단장됐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카페트를 없애고, laminate wood로 깔았고, 벽을 다른색으로 산뜻하게 칠했으며, 훼손된 블라인드도 갈았습니다.



애리조나한인회 초청으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열린 70주년 광복절 기념식 (8월 14일, 금)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참석하신 김현명 총영사님과, 새로 선발된 미스애리조나와 함께 찍었습니다.



70주년 광복기념으로 백일장 대회가 있었는데 당선된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속 인물들은 당선자들, 최혜민, 혜인, 혜선, 박에스더, 그리고 회장, 이사장, 부회장입니다.

뉴멕시코 소식

미 법률협회 ‘올해의 모범 변호사’로 노영준 변호사 선정

노영준 변호사가 2015년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가 선정한 산드라 데이 오커너 상 (Sandra Day O'Connor: 전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수상한다. 이 상은 미국 법률협회 (American Inns of Court)가 매년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자원 법률 상담 활동을 많이 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미국 법률협회는 현재 360개 지부와 127,000 회원이 등록된 미국 변호사 및 판사들의 모임으로 전문성과 윤리를 추구하는 비영리 법률협회이다.

2015년도 수상자로 뉴멕시코 산타페 로펌 Cuddy & McCarthy에 소속된 노영준 변호사가 선정된 소식은 산드라 데이 오커너 전 대법관이 알려왔다. 이 편지에서 오코너 전 대법관은 노 변호사가 많은 시간의 자원 법률 상담 활동과 공익을 위한 법률 대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산드라 데이 오코너는 아리조나 출신으로 레이건 대통령 때 최초의 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06년까지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냈다.

노영준 변호사는 2015년 10월 24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어워드 세레모니에 참석하여 Elena Kagan 미 연방 대법원 판사로부터 상을 받을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8년 전 산타페 로펌 Cuddy & McCarthy에 소속된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75건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연간 540여 시간 이상의 자원 무료 법률 상담 활동 및 공익을 위한 법률 대리를 해 왔다. 또한, 언어가 제한적인 소수민족의 대리를 무료로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한인회와 앨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법률 자문 봉사도 해왔다.



현재 노 변호사는 산타페 무료법률 상담협회 회원이며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도 능통한 언어의 텔런트를 지닌 변호사이다. 와이오밍주 출신으로 와이오밍 주립대학 법무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산타페 소재 미국 법률협회 분과인 올리버 세스 협회(Oliver Seth Inn of Court) 회원이고 미국 법률협회 이사(Trustee of the American Inns of Court)를 겸임해왔으며 2015년 Southwest super lawyer로 등록되기도 했다.

2015년 하반기 원거리 순회영사 업무

주 로스앤젤레스 종영사관은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한다.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에서의 순회 영사 업무는 뉴멕시코 한인회관(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에서 9월 24(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순회 영사 업무 시 여권, 가족관계 등록 (구 호적업무/ 출생 혼인 · 사망), 국적 (상실 · 이탈), 병역,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 등록(등록 · 등본 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및 장소 · 시간등에 대한 문의는 주로스앤젤레스 종영사관 순회영사실 (이메일: consul-la@mofa.go.kr이나 전화: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0월 11일 (일) 오후 1시

강사: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주제:

Business Entity

(사업체 시작, 운영 및 관련된 법률문제)

Estate Planning

(유서, Living Trust 및 Probate)

장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본당

601 Tyler Road NE ABQ. NM 87113

(Osuna & Edith에서 2 블럭 북쪽)

주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505)341-0205

광복기념 백일장

뉴멕시코한인회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백일장 대회가 있었는데 당선된 글중에서 두편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North and South Korea

Essay by Hyemin Choi
4th grade

In my opinion North and South Korea together is not a very good idea and they should not be united because it would get very, very complicated if they did. If North Korea took over the country, the country would be controlled by bad, powerful people. I think it is best for South Korea to take over the whole country. A few times I thought that maybe S. Korea and N. Korea could be united, but Kim Jung Un and Park Keun Hye would never even look at each other. Why I think South Korea should take control of the country instead of North Korea is because N. Korea's dictator starves and murders innocent people trying to escape from torture.



A problem with reunion is that Russia and China helps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 helped South Korea (now the United States helps S. Korea). China and Russia are very strong, and they have stacks full of bombs, guns, and a lot of more hazardous things.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can be as strong as China and Russia with some support. My opinion is not just because I'm South Korean and I like South Korea, but because I think that the innocent people in North Korea should have justice and should stand up for their rights. They should not be forced to do things or have to either lose or get separated from their family members or their best friends.

In South Korea, people do what they do and believe in what they believe without breaking the law. My opinion is aggressive and might make Kim Jung Un very angry, but I am saying my opinion that I wish comes true. People in North Korea can't speak up for themselves or else they would either be killed, tortured, thrown in jail, or some other way they feel hurt or insulted, mentally and physically. South Koreans live a whole lot better life than North Koreans. I know it would be better to see a country doing great and making good choices than to see a country doing horrible and its population super low with the living people starving, tortured, and dying. All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being forced to worship the dictator and are having a hard time.

It would embarrass Kim Jung Un if someone posted on internet the starving people in his country. The only way I think that would let South Korea conquer North Korea

광복 단상

70주년을 기념하여

박에스터



광복으로 세운 나라 70년을 키웠네
해방동이가 6.25도 보았네
UN의 도움으로 광복은 이어지고
갈라진 민족은 한국 조선 대통 잇고
한 맷힌 통일은 언제 하려 하는가
통일이여 오라고 서로서로가 부르는데
통일은 언제 오려나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랑 나누고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 받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로 보국하고
우리나라 꽃 피우자.
금수간산 삼천리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고향산천 찾아가서 대대손손 살아보세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민족을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소서.
무궁화 동산 대한민국 만만세!!!!

2015. 8.15.

is if a lot of strong countries support South Korea. I think that North Korea could be defeated by South Korea if Russia and China stops supporting North Korea. If N. Korea and S. Korea have war again I think that the war would last long because S. Korea are doing good and now they have the U.S. North Korea is doing poorly, but has China and Russia. The war might last long, but not as long as the Korean War that went on for years. Kim Jung Un and Park Keun Hye should and will not meet to become one country. Even if they do plan to become one country they can't due to political reasons. I think it would be best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o not ever become one country it would be nice if they did, but it is impossible. The hatred between them is too big for them to try not to kill each other. If South Korea does defeat North Korea I'd be more than happy.

칼럼

감사의 글

먼저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지난 8월 14일 인천 사랑병원에서 임종하셨습니다. 보통 삼일장을 하지만 주일이 되어서 사일장으로 17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해로 93세가 되신 저희 아버님 김도경 권사님은 일제시대에는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해방이 된 후에는 평안남도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전쟁이 발발되고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밀어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동네에 들이닥친 트럭에 실려 인민군으로 끌려가셨지요. 낙동강 전투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으시고 후송되던 도중에 연합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후 남한을 선택하시어 대구에서 월남하신 사촌형님을 만나 함께 생활하시다가 50년대 말 월남하신 친 누님을 만나게 되어 인천으로 올라오셨지요. 당시 아버님의 친 누님은 침례교 목사님 부인이셨지요.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도왔던 할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은지라 피난생활이었지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인천에 올라온 아버님은 학익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학익감리교회 담임목사님이셨던 임은영 목사님의 중매로 어머니를 만나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당시 어머님은 임은영 목사님 사모님의 사촌언니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셈이지요. 저희 아버님 김도경 권사님은 학익 감리교회에서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장례 모든 절차는 학익 감리교회에서 주관해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17일) 아버님 시신은 인천 가족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현재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19일)에는 가족들끼리 납골당을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는 외부출입을 전혀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저희 유족들은 23일 학익 감리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교우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자손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투박한 손입니다. 인천에서의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집을 짓거나 수리해주는 목공일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목수로 살아오셨지요. 겨울이 되면 집 안에는 반창고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고 특유의 반창고 냄새들이 집안에 고여



옛날의 목사님 가족 사진

김기천 목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있었지요. 추운 겨울날씨에 맨손으로 시멘트 공사와 목공일을 하시면 손이 갈라지셨습니다. 갈라진 손가락들을 하얀 반창고로 단단히 돌려 매시고 매해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손을 만지면 매끈매끈한 반창고와 더불어 까칠까칠했던 아버님의 투박한 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의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다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묵묵히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아버지는 선함과 성실함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지요. 언젠가 12월인 것 같네요. 십일조 봉투에 반창고가 붙어있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라고 준 십일조 봉투였는데 연말이 되면서 봉투가 헤어지자 반창고로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월급생활이 아니라 일을 하는 대로 받는 수당으로 생활을 하셨기에 일당을 받아오시면 그 투박한 손으로 십분의 일을 세어서 매번 봉투에 넣어놓으셨던 것이지요. 봉투를 너무 자주 만지니까 연말이 되면 봉투도 아버지의 손처럼 갈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반창고로 토맨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반창고를 붙인 봉투에 헌금을 넣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버지 김도경 권사님은 그 투박한 손으로 저희에게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1923년 2월 4일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국 역사와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저희 아버님 김도경 권사님은 2015년 8월 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장례 기간 동안 저희 유족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인: 이정옥 권사

아들: 김기천 김숙경, 손자: 김바울 김다윗

아들: 김기정 김문옥, 손녀: 김은혜

딸: 김기분



최근의 목사님 가족 사진

수필 12지 (十二支) 동물 시리스 #10

닭 - 다섯 가지 덕을 가진 닭



닭의 원조는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지에 살던 붉은 빛깔 멧닭(또는 들닭)이다. 일종의 꿩인 들닭을 기원전 2000년 경 인도사람들이 가축으로 만들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대닭'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가축화하는 과정이 대와 연관되었다고 추측한다. 벼과 식물인 대는 5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 죽는다. 야생닭들이 그때 대밭으로 몰려들어 가지 끝에 매달려 아래로 늘어진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접촉했을 것이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번식력도 왕성해져 쉽게 가축화한 것으로 짐작한다. 노란 피부는 나중에 회색 멧닭과 잡종 교배되어 나타났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닭이 그 멧닭에서 진화한 것들이다. 가축화의 목적은 닭싸움을 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이나 닭고기를 생산하려고 길러졌고, 지금은 그에 맞게 아주 여러 품종이 개발되어 있다. 머리에는 붉은 벼이 있고 날개는 퇴화하여 멀리 날지 못하나 다리는 튼튼하다.

어렸을 적에 본 닭의 사는 모습은 이러했다. 이른봄에 바구니 비슷한 둥지를 짚으로 엮어 초가지붕 밑 사람의 왕래가 찾지 않은 곳의 들보에 매달아주면, 암탉은 자리를 보아 알을 낳기 시작한다. 알의 수가 웬만큼 되었다 싶을 때 품어 스무하루를 보낸다. 노란 병아리가 깨어 나오면 행여 다칠세라 날개 밑에 두고 보호하면서 모이 쪼는 법부터 가르친다. 동시에 제가 내는 두 가지의 소리를 병아리들이 반드시 알아듣고 따르도록 훈련시킨다. 모이를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정이 담긴 소리와 목을 길게 빼고 깃털을 곧추세운 채 질러대는 날카로운 소리로 조심하라는 경고다.

닭들은 때로는 안방에까지 드나들면서 음식물 찌꺼기며 낱알, 벌레, 뒷터의 야채 등을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았다. 병아리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암탉은 다른 동물이건 낯선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달려든다. 그렇게 정성껏 기르던 새끼들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쫓아 제갈길을 가게 만든다. 이 때쯤이면 예쁘기만하던 병아리들의 모양이 흉하게 변하면서 암수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수컷들 가운데 뼈대가 굵고 색깔이 고운 것은 주인에게 선택되어 집안의 모든 닭을 거느리면서, 새벽을 알려주는 장닭의 임무를 수행한다.

요즘 양계장 닭들의 쳐지는 감옥살이 죄수의 신세나 진배없다. 여러 마리가 한 방에 갇혀 살거나 닭장에 한 마리씩 들어있으면서, 하는 일은 알 낳는 것이나 쌀 찌는 것뿐이다. 해가 뜨고지는 것도 모르게 캄캄한 방에서, 조절되는 전깃불에 따라 먹고자고 한다. 알낳는 기계,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고 만 것이다. 좁은 곳에서 많은 수가 살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질병까지 많아져, 받는 고통도 그만큼 심해졌다. 얼마 전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중국에서 시작된 심금성호흡기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조류독감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겨울철이면 야생조류들이 옮기는 조류독감 때문에 농장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지고는 한다.

'브로일러'는 통째로 구워 먹기에 알맞도록 개량된 닭을 일컫는 말이다. 육계라고도 하며, 병아리 단계를 지나 영계가 되면 바로 식육용으로 도살당하는 닭이다. 자국민이 즐겨 먹는 닭가슴살 생산이 목적인 미국의 브로일러산업은 요즘에는 가슴살 말고도 부산물이 많아, 한 해에 250만 톤 이상을 수출한다. 날개와 닭발은 중국에서, 닭다리는 러시아에서, 내장은 남아프리카에서, 닭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간다. 그 중 내장은 애완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며, 털은 같아서 동물의 사료나 플라스틱 강화제로 사용한다. 닭이 생산하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만하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달걀이나 닭고기는 손님을 대접할 때 요긴하게 쓰였다. 그밖에도 닭은 덕목을 다섯 가지나 지닌 동물이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文이요, 발에 날카로운 며느리발톱이 있어서 무기가 되니 무武이며, 적과 잘 싸우는 용기가 있으므로 용勇이고, 먹을 것을 얻으면 서로 가르쳐 주므로 인仁이며, 때를 알려주므로 신信이다. 모두가 옛날 야성을 지녔을 때나 표출하던 덕목이 되어, 지금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한다.

우리 민속에서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었으며 다산의 상징이었다. 새벽 닭울음은 어둠을 열며 밤을 지배하는 악귀들이 모습을 감추게한다고 믿었다. 닭은 기러기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잡귀가 범하지 못하도록 해준다고 믿어 전통혼례에 사용되었다. 조상의 제를 모실 때 닭의 울음소리를 기준했다. 삼성출판박물관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장닭목판화가 소장되어 있다. 한 가정의 융성이나 액막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초면 장닭그림을 문에 붙이기도 했다.

닭띠의 사람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화려함을 좋아한다. 의리가 있고, 거짓을 모른다. 신념에 차있는 노력가이다. 상상력이 뛰어나며, 모험심도 강하다.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태입이다. 반면 독선적이며 몽상가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의욕이 지나치고 보수적이다. 급한 성격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흔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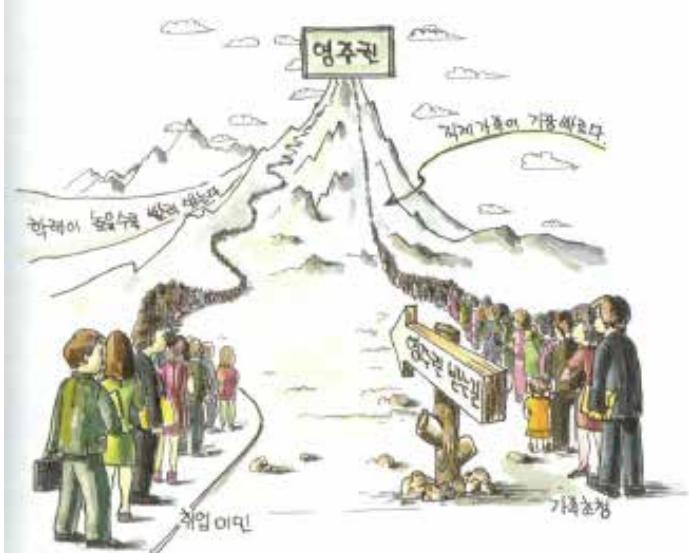
나는 닭서리가 죄가 되지 않던 어린 시절을 살았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다가 큰 벌을 받던 시절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일이나 닭 물 먹듯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는 있지만, 잘 지켜졌는지 자신은 없다.

행복한 미국생활 #4

미주생활 가이드북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 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스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부)

1-9 영주권이 뭔지 (이민절차의 일반적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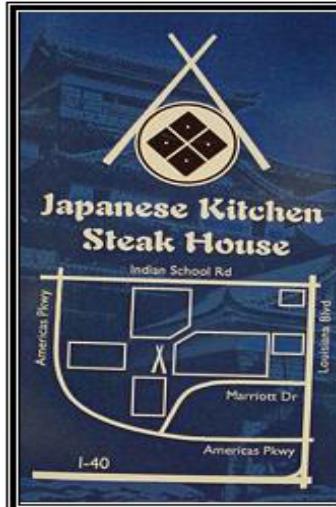


학생비자의 유지와 소액투자비자의 유지를 위해 견우와 직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두 자녀가 미국에 잘 적응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영주권을 어떻게든 받자는데 마음을 굳하게 된다. “영주권이 나오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알고 있는게 많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견우는 연오에게 고백을 한다. “미국에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하려는 초보(?)이민자와 얘기를 해보면 잘못알고 있는 대목이 늘 비슷하지. 사실 어떤 세상일에 오해가 많다는 것은 그러한 현실이 일반인의 상식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일 확률이 높겠지.” 연오도 본인의 경험을 떠

올리며 맞장구를 친다.

“우선 비자와 영주권 진행절차를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그 자체로 일종의 일할수 있는 신분이 나온다고 여기는 이민자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신분유지와 영주권 수속은 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고 보면 된다. 가장 흔한취업이민인 3순위 숙련공 분야는 구인 광고 절차를 통한 노동 승인, 스폰서에 의한 이민청원 그리고 실제 영주권 신청의 세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틀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시점은 I-765라 불리는 서류를 제출하는 마지막 세번째 단계에 이르러서이다. 이 세번째 단계가 적게는 2 ~ 3년 많게는 6 ~ 7년까지 적체가 되어있다. 그러니 이민자는 이 시점까지 어떤 비자든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마지막 단계 영주권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영주권 대기자의 신분으로 변경되지만 그이전까지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같은 비자신분을 유지하여야만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취업이민절차 진행 중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구.”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로 하면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도 의무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서 스폰서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의미는 훗날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일한다는 것이다. 즉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기전에 회사에서 근무할 의무가 없으며, 스폰서회사 역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채용할 의무는 없다. 원래 취업이민절차가 상정하는 원칙적인 상황자체가 청원승인까지는 외국에 있다가 순서가 되면 그제서야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만 먼저 미국에 들어온 경우는 최종승인까지 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비로소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꽁치정식, 연어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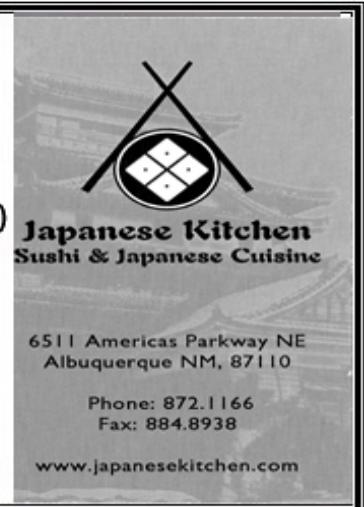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마음에 맞지 않지만 일해 주다가 (!)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회사에서 사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하지. 이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영주권 절차란 말이니.” 법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취업 영주권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여전히 이민국에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만일을 대비해 영주권을 받은 뒤 6개월 이상은 일한 뒤 그만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많이들 잘못 알려져 있지. 흔히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들 얘기하잖아.” 그러나 취업이민 스폰서의 유일한 자격 조건은 그 외국인이 받게 될 임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이다. 다만 이 능력은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게도 위의 논리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점 및 그 이후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취득 시 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있어야 한다. 재정 능력 입증의 기본 서류는 세금 보고서이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회사는 income tax return 서류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받게 될 연봉 이상의 순익을 보고해야 한다. 그 폰서 회사가 100명 이상의 정식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재정 담당자의 편지로서 택스리턴 없이 청원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흔히 100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민국의 기본 입장은 회사에 경제적인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건 때문에 일부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법인 소득세를 영주권을 기다리는 직원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걸 보면 그 까짓 영주권이 뭔데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전문가의 한마디

순서매기기 매커니즘

어렸을 때 저는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순서매기기는 필연적으로 후순위자와 낙오자를 양산합니다. 어린 맘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순서매기기와 이에 수반된 경쟁이 학습에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순서를 매겨야 하는 이유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원하는 사람보다 재화가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요보다 재화의 공급이 적은 탓에 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생기고, 이를 큰 무리 없이 분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굳이 경제학 이론을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재화의 가치가 높고 희소한 것에 높은 순서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를 정하는 시스템 역시 순서매기기 매커니즘이 적용됩니다. 미국 정부가 정한 연간 신규 이민자 수보다 이민신청자가 훨씬 많은지라, 미국은 자국의 인구 구성이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이민자의 자격에 순서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는, 주첨이나 망명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요, 둘째는 취업에 의한 이민입니다.

가족 초청의 순서매기기 기준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배우자 그리고 친 부모님에 대한 초청으로 쿼터제한이 없이 대기 없이 신청하여 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0 순위입니다. 그 외에는 연간 쿼터가 있어 짜오랫동안 대기한 후에만 영주권을 받습니다. 대기기간은 매달 바뀌는데 대체로 말하자면, 가족 초청 1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이고 현재 기준으로 약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순위는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6개월을, 성인 자녀는 8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이고 약 10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초청으로 접수 후 무려 12년을 대기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다 출신 국가에 대한 순서까지 도입하여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더 많은 대기 기간이 요구됩니다. 인구가 특히 많은 국가들이므로 타국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에 따라 그 대기 기간에 순서를 둡니다. 유럽에서의 고급 인재를 영입하여 국가 발전을 이룬 역사적 교훈으로, 미국은 특히 학자들의 이민에 관대합니다. 취업이민은 총 5가지 순위로 나뉘는데 특히 1순위에서 3순위에 이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4순위는 종교 이민인데 종교 자유의 건국 이념에 따라 관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영주권을 받습니다. 5순위는 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받는 투자 이민을 말합니다.

1순위 취업이민은 큰 업적을 쌓은 인물이나 학자 등 대개 박사 학위자 이상을 위한 이민이라고 보면 되고 수개월이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국 경제를 위한 교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에도 최우선권을 줍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학위 이상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at.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 삼선짬뽕 \$8.95 /

해물탕면 \$8.95 / 다섯가지 냉채 \$32.95 /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

탕수우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소지자에게 배당합니다. 대개 1년에서 2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마지막 3순위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경력을 소지한 숙련공, 그리고 미숙련공에게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3순위는 특히 대기기간에 변화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대기기간을 없앴던 2007년 여름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1-10 김직녀의 취업이민수속 (EB3, 취업이민 3순위)



“거래처 세탁공장 사장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지” 견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마디 한다. “그럼 포지션은 재봉사로 한거야?” 연우는 견우의 아내 직녀의 한국에서의 경력을 떠올리며 질문하다. “숙련공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할수 있더라구. 내가 한국에서 세탁소를 한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지 뭐야.” 견우가 말을 잇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수 있는 고용주가 생각보다 없더라구. 일단 실제로 대부분 비용과 수입을 맞추어서 세금보고상 순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체들 사장님들도 이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도 몰라 염려가 많더라고니까.” 연오도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맞장구를 친다. “나는 우리와이프가 주재원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은거 아니냐.”

미국에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해줄 직계혈족이 없다면 영주권을 위해 남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취업을 통한 이민절차가 된다. 한인비즈니스가 미국경기와 함께 호황이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영주권도 많이 진행하였지만, 최근에는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인이 경영하는 스몰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어 영주권진행도 많이 줄어든 분위기이다. 하지만 역시 지금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비즈니스이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전문가의 한마디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취업이민 스폰서라 하면 동시에 이민 사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주공사 등을 통해 취업이민 3순위를 시도하여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미국의 스폰서업체가 유령회사였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알려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이민자입장이 아닌 미국고용주 편에서도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서 관련분야의 경력직원을 들여오고 싶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싶은데, 과연 내 비즈니스가 스폰서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취업이민 스폰서의 문제는 재정능력의 문제입니다. 즉 영주권신청절차를 시작해주는 때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될 때까지 그 위국인이 받아야 하는 적정연봉(Prevailing wage) 이상의 재정능력을 스폰서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이 취업이민에 있어 재정능력을 중요시하게 보는 기본정신은 회사의 현재능력 밖의 외국인 고용은 막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유돈으로만 취업이민 스폰서를 하라는 취지인 셈입니다.

그럼이 여유돈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서 입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케이스는 먼저 연방노동부의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변호사는 해당 직책의 적정연봉액수를 받게 되는데, 고용주로 부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받아 이액수 이상으로 순소득 (Net Income) 을 신고 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3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포지션을 뽑으려고 하는데 2만불만 순익으로보고했다면 방법이없을까요.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Sat
4:00-9:00 Sun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뉴멕시코 소식

A-1 Oriental Market

새 장소로 이전

이민국은 공식지침을 통해 재정 능력의 입증방법을 세가지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번째는 말씀드린대로 순익 (Net Profit) 이 연봉을 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비록 순익으로는 여의치 않더라도 순자산 (Net Asset) 으로 계산하면 연봉이상을 지급할 여유가 회사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만약 현재 그 직원이 H-1B 비자 등으로 이미 그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추가로 줄 것이 없으니까요. 또한 만약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라면 이러한 서류없이도 회사 재정담당관의 확인 편지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여기까지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직원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세금보고만 잘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LLC라든지 자영업형태로 세금보고를하여 비즈니스는 개인 세금보고 서류상의 스케줄C에 보고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즉 비즈니스로 부터 받은 수입을 포함한 개인세금 환급상의 첫페이지의 금액으로 보면 충분히 연봉을 감당할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I-140 단계에서 고용주에게 상황설명을 요구합니다. 즉 세금환급 첫페이지의 금액은 이민자는 물론 사장인 스폰서의 가족 역시 부양해야 하는 금액이 총액이 되므로 사장가족은 1년동안 얼마의 금액이 생활비로 들었는지 적어주어야 하고 이금액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 내지는 세금보고상 개인사업자 형태로 보고되는 세금환급인 경우 이점을 미리부터 고려하여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고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알버커키지역사회에서 동양식품 상점으로 30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온 A-1 Oriental Market이 영업장을 옮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손님을 맞게 되었다. 지난 7월까지 약 24년간 영업을 해 왔던 와요밍-컨스티튜션 코너 자리에서 북쪽이 되는 몽고메리와 산페드로 코너로 이사를 한 것이다. 한인교포들의 거주 지역의 분포가 지난 20년사이에 차츰 북쪽으로 이동되어온 것에다가 영업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오던중 이 곳 Asia Market가 문을 닫게되는 결정을 하게되어 이 자리에 A-1 Oriental Market (A-1 한국식품)이 옮겨 올수 있게된 것이다. 따라서 원래 있던 Asia Market 를 이용해 온 손님까지도 인수한 격이 되었고 또 많은 A-1 한국식품의 원래 고객에게는 그들의 거주지에서 상점까지의 거리가 전보다 더 가까워 진 고객이 많게 된 까닭에 이번의 자리 이동은 많은 고객으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 이전한 마켓 앞에 선 신옥주 집사)

상점의 면적이 2400 SQ FT인데도 리모델을 잘해서 식당영업도 할수 있게 부엌시설을 갖추었고 알뜰한 진열대 배치로 한식 식당코너를 만들어서 식사도 할수 있게 되었다. 20종류의 한식메뉴는 ToGo 음식을 좋아하는 미국인 손님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A-1 Oriental Market상점 이전이란 큰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없이 이루어져서 기쁘다고 말하는 신옥주 집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긍정적이고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여성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남편 되시는 신광순 권사는 8대 뉴멕시코한인회장을 역임했었고 코랄레스(Corrales)에 있는 Ichiban 일본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다. 큰 딸인 줄리(Julie)는 어머니를 돋고 있으며 아드님 자시와(Joshua)는 식당일을 돋고 있다. 신광순 권사와 신옥주 집사 부부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교인이시다.

상점 주소: 6207 Montgomery Blvd. NE 전화: (505)275-9021 (글:편집부)

취업영주권의 방법

순위	세부Category	신청자	L/C여부
1	EB1-A	매우 특출난 재능인 (extraordinary ability)	No
	EB1-B	뛰어난 교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No
	EB1-C	다국적 기업임원 또는 간부 (multinational executive/managers)	No
2	EB2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 (member of profession holding advance degree)	Yes
	EB2-NW	국외고려 예외적무선권자 (National Interest Waiver)	No
3	EB3-전문직 /숙련공	전문직 (professional) 학사학위자 숙련공 (skilled worker) 2년이상 경력자	Yes Yes
	EB3-비숙련공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Yes
	Schedule A	간호사(RN)/풀리치료사(PT)	No
4	EB4 특별이민	종교이민 (Religious Worker)	No
		미국국적회복/영주권 지원회복관련	No
		여성폭력방지법(VAWA)	No
5	EB5 투자이민	최소 1백만불 투자 및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창출자 (일부 지역프로그램에는 50만불투자로 가능)	No

온두라스와 한인사회

자료제공 : 강영신

온두라스 한인회장

온두라스 한국학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 개관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속한 4년 단임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으로 인구는 약 800만, 면적은 112,990km(남한 크기 정도)이며 수도는 테구시갈파(Tegucigalpa)이다. 국토는 북쪽으로 카리브, 대서양과 남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화폐단위는 렘페라(Lempira)이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1200불 정도이다. 중미 5개 나라 중(파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다.

주민들의 주식은 옥수수가루로 만든 또르티아, 쌀, 팔, 뿔라타노(바나나 일종) 유까(마 종류의 나무뿌리) 치킨(닭) 등이다.

기후는 우기(6-12)와 건기(1-5)로 나뉘어지며 평균 온도 30-32도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산뻬드로술라, 라 세이바, 졸루테까, 라 모스키티아는 덥고 수도인 테구시갈파와 에스페란사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하며 습도도 없고 서늘하여 사람살기엔 아주 좋은 날씨이다.

2. 온두라스 역사

온두라스는 기원전 2세기에 발생한 마야 문명지대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문자를 발명할 정도의 고대문화를 만들었던 마야민족은 현재의 코판(Copan)주를 중심으로 온두라스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스페인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 계속된 전쟁으로 마야 문명의 유적지인 코판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당시 렘페라(Lempira)는 끝까지 저항한 영웅으로서 지금까지 온두라스의 화폐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1821년 9월 15일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3. 인종과 언어

온두라스는 18개주(행정단위)에 7개의 인종이 살고 있다.

- 1) 미스키토
- 2) 페치
- 3) 가리후나
- 4) 타와카스
- 5) 렘카
- 6) 초르티스
- 7) 시까케스

온두라스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다. 그러나 북쪽 카리브해안에 위치한 미스키토 인디언들은 그들만의 말과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의



로아탄 섬이나 라 세이바, 펠라 등 항구도시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이나 양골라에서 대서양을 거쳐 온 흑인들의 후손들이 카리브 인디언으로 살아가고 있다.

온두라스 사람들의 특징은 친절하고 온화하고 조금 게으른듯하나 낙천적이다.

4. 온두라스 자원

온두라스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아직까지 화전민 방식의 농업이 만연하여 산림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농경지는 국토의 1/3에 불과하며 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담배, 면화 등이 재배된다. 온두라스는 산림광물, 해양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1998년 10월 말 태풍 미치의 (Mitch) 영향으로 만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의 수재민 30억불이상의 재산피해, 도로 항만 등 교통망이 파괴되고 바나나 등 주요 수출 농산물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5. 종교

온두라스 국민은 카톨릭 신자 90%, 개신교 6-7% 정도, 기타로 분포되어 있다. 온두라스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각국의 기독교 선교단체가 주재하고 있고 한국인 선교사도 10명 정도 각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인교회는 현재 세 곳(한인교회, 중앙교회, 사랑의 교회) 있다.

6. 온두라스 관광 산업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유명한 산호섬인 로아탄(ISLA DE ROATAN) 섬이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

또한 코판주에는 마야문명의 유적지들을 볼 수 있다.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근접한 산타루시아, 바예 데

앙헬레스에는 민속촌과 오래된 카톨릭 교회들이 있다.

민속촌에서 판매되는 토속품인 손으로 만든 목각 상자는 선물용

장식품으로 최고의 인기가 있고 가죽공예제품 역시 인기가 있다. 또 해마다 연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구국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한 제일 오래된 수야빠 성당이 있다.

7. 온두라스 내란

2006년 호세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은 집권 후 온두라스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남미 베네수엘라의 ‘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도움으로 온두라스 헌법이 금하고 있는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몰래 공항으로 들여오다가 군경 합동 검문에 적발되었다.

결국 그는 2009년 6월 군부의 구테타에 의해 쫓겨났고 국회의장인 ‘마첼레티’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남은 임기 6개월간 과도정부를 이끌어 가게 하였다. 이 정변 이후 온두라스 사회는 더욱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침체를 거듭하면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주민들은 더욱 빈곤한 생활을하게 되었다.

8. 주 온두라스 한국 대사관 개관

온두라스는 한국과 1962년 4월 1일 수교를 맺은 친우방 국가이다.

수교 45년째인 2007년 4월 온두라스에 처음으로 ‘주 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초대 김순규 대사, 2대 원종온 대사, 현재 3대 김래혁 대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9. 한국인 이주 역사와 고 송봉경 장로(2008년 작고)

온두라스의 한국인 첫 1호는 1976년에 온두라스로 이주한 고 송봉경 장로 가족이다. 송봉경 장로는 용인대를 졸업하고, 유도 헤비급 한국국가 대표 선수를 지냈으며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당시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온두라스에 그는 육군사관학교 무관으로 초빙되어 와서 육사에서 유도와 태권도 등 무술을 가르쳤다. 그 후 육사에 이어 대통령 경호실, 경찰 사관학교와 특수부대요원 등을 지도했으며 여러 도시에 체육관을 개설하고 수도인 테구시갈파에도 자영 체육관을 열었다.

송봉경 장로는 초창기의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특유의 성실함, 근면, 끈기, 정직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30년 동안 꾸준히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알렸으며 동시에 온두라스 사회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시민권과 수많은 감사패, 공로패를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2005년 3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체육공로 금장훈장을 국회의사당에서 수여받은 것이다.

또한 그는 1) 1990년 한인회 설립 2) 1991년 한인교회 창립 3) 1994년 한국학교를 설립하였고, 초대에서 6대까지 재 온두라스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인 사회의 기초를 놓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송봉경 장로가 만들어낸 이 세 가지 업적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한인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한인교회에는 고 송봉경 장로가 그린 성화가 20점이 걸려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인 섬유업체, 봉제공장들이 온두라스 제2의 대도시인 산페드로 술라시로 들어옴으로 인해 한국인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창 번성기일 때에는 한인 800명 정도가 봉제 공장과 한인업체에서 일하며 온두라스에 거주하였으나 2009. 6월 당시 군부에 의해 축출당한 ‘호세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이 각종 세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과격적으로 인상하여 한인봉제업체에 큰 타격을 줌으로 인해 한국인 공장들은 인접국가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그 결과 현재 소수의 한인업체, 한인 약 250명 정도만이 남아 거주하게 되었다.

10. 하늘이 가져다 준 축복

2009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PORFIRIO LOBO -포르피리오 로보(뻬뻬)’씨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고 송봉경 장로한테서 태권도를 오랫동안 배운 사람이었다. 뻬뻬 대통령은 1986년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로서 한국 사람과 한국을 참 좋아했다.

그는 2010년 1월 27일 취임하자마자 작고하신 송봉경 장로의 미망인을 주한 온두라스 대사에 임명하고 아그레망을 한국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온두라스 귀화 전 그녀의 원국적이 한국인 관계로 미망인이 부임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 직업 외교관으로서 벨기에 영사, 스페인 공사를 지낸 송봉경 장로의 사위인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강영신회장, 중앙이 뻬뻬대통령)

IDIAQUEZ씨를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임명하였다. 이디아께스 대사는 현재까지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봉직하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 송봉경 장로가 살아 계셨으면 뻬뻬 정부에서 체육부장관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된다.

뻬뻬 대통령은 공사석을 불문하고 태권도 수련이야기, 스승이신 고 송봉경 장로님의 가르침과 추억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겨하였고, 늘 지갑에 태권도 공인 3단증을 넣고 다녔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꺼내 보이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자랑하곤 했다. 그는 임기 중 2011년 2월, 35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등 한국과의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통령궁 옆에 있는 한 거리의 이름을 공식 한국거리라(CALLE DE COREA) 부르는 명명 기념식, 한국의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팀, 국기원 시범팀을 초청하여 대통령궁에서의 전무후무한 태권도 시범 행사도 성대히 가졌다. 그로인해 온두라스에서의

48년 만에 사제의 만남이 앨버커키에서

서울 수도여자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흥수영 권사님과 1969년도 졸업생인 제자 강영신 씨의 만남이 48년 만에 앨버커키에서 이루어졌다. 이 만남에는 윤태자 집사님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에 얹힌 일화가 재미있다. 강 씨와 같은 해 수도 여중을 졸업한 윤태자 집사는 1995년에 앨버커키로 건너와 오랜 시간 흥 권사님과 알고 지내왔지만 스승인 줄은 모르고 지내다가 2006년 권사님의 전시회에 전시된 수도 여중 교정 풍경을 보고 나서야 스승인지를 알게 되었다.

흥수영 권사님은 1968년 서울 수도 여자 중학교 미술교사를 끝으로 1969년 도미, 남편 김준호 장로님과 슬하에 1남 1녀와 손주들을 두고 계시다. 1961년 흥의대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 대한민국 국전에서 특선 상을 받은 권사님은 도미 후에도 한국에서 개인전과 2인전을 가졌고 앨버커키에서도 DCAC에서 2인전을 가지는 등 Park Fine Art 갤러리에서 활동했다. 2000년에는 앨버커키 감리교회의 권사로 취임하셨고 2014년 9월에는 남편인 김준호 장로와 함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를 발간하셨다. 장로님의 희수[喜壽]를 기념하여 부부 공동으로 발간한 책이다. 김준호 장로님의 신양칼럼, 취미, 연구 논문 등이 담긴 글과 가족, 친지 사진집, 권사님의 미술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제자인 강영신 씨는 온두라스(Honduras) 이민 1호로 구글 검색창에 이름을 넣으면 여러 정보가 한꺼번에 뜨는 유명인이다. 인구 800만의 온두라스는 남북한 합친 크기 정도이고 한인 사업으로는 봉제 섬유사업이 활발하며 현재 한인 인구가 250여 명 정도의 작은 한인사회이다. "남편인 송봉경 씨가 설립한 '송봉경 종합체육관'을 통해 온두라스의 800만 인구 가운데 태권도 수련자는 1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1981년 문을 연 도장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거나 이 도장 출신 사범들로부터 지도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포르피리오 로보 로사 전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은 17년 전 태권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로보 대통령이 산림청장 재직 시절 온두라스 유일의 이태권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시작됐다. 당시 로보 대통령은 매일 오전 5시에 도장에 나와 태권도를 수련했다고 한다. 2011년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세계태권도연맹(WTF)으로부터 명예 9단증을 받기도 한 '태권도 열광 팬'이다. 2008년 송씨가 작고한 뒤에도 강 씨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한국학교 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강 씨를 한국 대사로 지명, 현지 사회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귀화한 외국인은



사진: 왼쪽에서, 김준호장로, 김수영권사, 윤태자집사, 오른쪽 끝은 강영신 온두라스 한인회장

원적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국내법 규정에 저촉되어 대사로 임명 되지는 못했지만 로보 대통령은 강 씨의 사위인 미겔 이데아께스 바라다트 스페인 공사를 대신 온두라스 주한대사로 발령냈을 정도로 신뢰를 아끼지 않았다. '온두라스 최초로 온두라스에서 태어난 한국인'인 강 씨의 딸 송이벳 씨는 온두라스 주한대사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며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바른 한국어 스페인 버전' 활영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강 씨가 이민 오고 10년 후에야 한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한인회장 직을 맡을 적임자가 없어 남편인 송봉경 씨는 초대에서 6대까지 한인 회장을 맡았다. 강 씨는 현재 20대 한인 회장직을 맡고 있고 '송봉경 종합체육관, 피트니스'를 운영 중이다.

한글학교 교장도 21년째 하고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 운전 거리 5시간이라는 열악한 환경도 책임감 있는 봉사 앞에선 열악함이 될 수가 없다. 한국학교는 2009년도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과테말라로 많은 인구가 이주하고 현재는 순수 한국인 25명과 다문화 가정에서 25명이 등록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3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한다.

강영신 씨는 이번 뉴멕시코 방문을 통해 많은 도전과 쉼은 물론이거니와 오래 전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 학창시절의 추억까지 듬뿍 얹어간다고 기뻐하며 온두라스 한인회, 한국학교가 뉴멕시코 한인회, 한국학교와 지속해서 정보를 교통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한국과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빼빼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끝마치기 직전인 2014년 1월 4일 송봉경 장로의 생일날을 기하여 온두라스 체육회장, 올림픽 위원장, 주 온두라스 한국 대사, 온두라스 태권도 연맹 회장, 송봉경 장로의 유가족과 전국의 태권도 유단자와 지도 사범들이 모인 가운데 '온두라스 태권도의 날'을 제정하였고 그 후 매년 1

월 4일을 온두라스 태권도의 날로 지키며 기념하고 있다.

최근 지난 7월 19-22일에도 현 온두라스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 대통령이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그 때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오찬행사 축사에서 한국과 온두라스의 현재의 돈독한 우호관계는 특별한 한사람 송봉경 장로의 큰 역할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아리조나 타임즈〉 뉴멕시코 판 개설

〈아리조나 타임즈〉가 "뉴멕시코 판"을 개설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알바커키는 아리조나 피닉스와 차로 6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걸리는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매주 보도되는 뉴멕시코와 아리조나의 뉴스와 정보를 통해 상호간의 교류를 확대해 비즈니스 활성화를 포함으로 함께 원원 (Win-Win)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뉴멕시코 교민들은 피닉스의 많은 한인업체들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의 정보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고, 아리조나 교민들은 뉴멕시코로의 여행, 비즈니스 확장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지는 지난 4월23일 (지령 567) 첫 기사를 내보내고 시험발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뉴멕시코 담당 이은주 기자가 활발한 활동으로 뉴멕시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뉴멕시코 뉴스는 각 식품점에 배포된 신문이나, 웹사이트 (www.KoreanAZtimes.com)를 통해 행사기사, 행사사진 및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뉴멕시코지역 독자발간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양 지역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다가가서 하나의 생활권을 사는 이웃으로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발행인 장재원

기사제보

이은주 기자

전화 : 505-903-2296 이메일 : Danbeega@hotmail.com

The Korean Arizona Times

기자 이은주
Reporteur Joo Lee

아리조나 타임즈
NEW MEXICO BRANCH

Tel. (505) 903-2296
danbeega@hotmail.com

PBX Main Office
Tel. (602) 764-2580
Fax (602) 254-5568
www.koreanAZtimes.com
2060 N. 16th St., Phoenix, AZ 85006

〈맺는말〉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작고 못사는 나라 이곳 온두라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곳에도 한인들이 작은 한인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다. 온두라스에 관한 소개를 할 때 이곳 한인 사회의 개척자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송봉경 장로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빼빼 전 온두라스 대통령과 송봉경 장로가 태권도로 맺은 인연은 한국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소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다. 미흡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온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VIVA HONDURAS !! VIVA COREA!!

뉴멕시코소식

2016년 탁상용 종이비행기 달력 출간

뉴멕시코주 이경화 장로의 종이접기 비행기 2016 '하루에 한 장 접기 달력'이 출간되었다. 이 달력은 영국인 종이접기 전문가 데이빗 미첼과 공저로 월마트(Walmart), 아마존닷컴(Amazon.com), 반스 앤드 노블(Barnes & Noble) 등 온라인 서적 판매망을 통해 판매가 시작되었다. 국내 우수 서적출판사로 손꼽히는 켄자스시티에 있는 앤드루스 맥 밀(Andrews McMeel) 사가 출판했다. 베스트셀러 서적은 물론 어린이용 만화책, 취미생활 관련 서적과 주부들을 위한 요리책도 출간하고 있는 앤드루스 맥밀 출판사는 260여 종의 달력으로 여타 출판사의 주종을 불허하며 달력 출판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매년 판매되는 달력 부수가 천오백만 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진 종이비행기 달력(Paper Airplane 2016 Fold-A-Day Calendar)은 하루에 한 장씩 하나의 비행기 모델을 접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색종이가 비행기 모델에 맞게 디자인돼서 완성된 종이비행기는 멋스럽다. 디자인은 같지만 서식(템플레이트) 색깔은 다른 40종의 비행기 디자인이 1년동안 약 7차례 반복된다. 색종이 서식은 출판사 편집부에서 작업했고 저자는 종이접기 방법을 그림과 글로 작성했다. 전체 40종류의 비행기 중 20개의 모델이 이경화 장로의 작품이다. 옛 디자인과 새것을 교체시키기 위해 모두 50여 종의 디자인을 출판사에 제공했다. 그것을 번갈아가며 이 장로의 20개와 영국인의 디자인 20개를 합해 매년 새로운 달력을 만든다. 특히 그의 디자인은 2 차대전 때 사용되었던 P-38 라이트닝, 초음속 정찰기 SR-71 Blackbird, 2차대전 때 사용되었던 P-38 Lightning, B-1B Lancer 폭격기, 그 뒤에는 F-15 Eagle, Eurofighter 2000.

종이비행기 달력 초판이 나온 것은 2006년이다. 처음 종이비행기로 달력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어코드(Accord) 달력 출판사 사장이 이경화 장로의 종이접기 비행기 웹사이트를 보고 생각해 낸 것이다. 컴퓨터 게임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시대에 종이접기 비행기 달력이 상품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처음엔 다소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초판이 나오자 뜻밖에 반응이 좋았다. 코스코(Costco)에서도 몇 년간 대량 판매했던 것이 선전 효과를 낸 것이다. 2008년에 어코드출판사가



사진: 이경화 장로가 Airliner737 종이비행기를 손에 들고 있다. 앞에 진열된 종이비행기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초음속 정찰기 SR-71 Blackbird, 2차대전 때 사용된 비행기의 하나인 P-38 Lightning, B-1B Lancer 폭격기, 그 뒤에는 F-15 Eagle, Eurofighter 2000.

앤드루스 맥밀 출판사에 합류되면서 더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을 위시한 영어권 나라는 물론이고 아마존-일본, 아마존-독일을 통해 비영어권 나라에도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경화 장로는 원래 전자공학계의 엔지니어로서 우주항공계통의 회사에서 일해 왔다. 한국의 아리랑 인공위성 1, 2호에 그의 설계 일부분이 탑재되었다. 최근까지 쏘아 올리고 있는 미국의 GPS 인공위성과 위성 발사체 안에 탑재된 장비 중에는 그의 설계가 포함된 장비가 많이 있다. 퇴직하면서 손자와 종이비행기를 접고 함께 즐긴 것이 종이비행기 전문가가 된 계기다.

지금까지 약 100개를 디자인했는데 그중 가장 잘 날고 보기 좋은 모델 32개를 곧 책으로도 발행한다. 비행 이론과 실제 비행기의 사진, 항공역사재료를 포함해 흥미롭게 만든 이 책은 2016년 봄 이곳 뉴멕시코 대학출판부(UNM Press)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그가 섬기고 있는 앨버커키연합감리교회 김숙경 사모는 "이 장로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종이 비행기 책을 내시는 것을 보면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로의 부친은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일생을 아동문학에 전념했던 '나의 살던 고향은...고향의 봄' 작사자 이원수이고 어머니는 '뜸북뜸북 뜰북새... 오빠 생각'을 작사한 최순애 권사이다.

하루에 약 500명에서 1,000명의 방문자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종이비행기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접할 수 있다. www.amazingpaperairplanes.com



2016년 종이비행기 달력 표지

글: 이은주 기자 아리조나 타임즈 2015.8.27

종교기사

한국교회, ‘성공’이 ‘실패’의 원인 손봉호 교수 초청강연회,

‘한국교회의 현실과 희망’

글: 양재영 기자

지난 10일(월)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주최하고, 미주한정협과 산돌교회 후원으로 손봉호 교수 초청강연회가 CIU(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의 현실과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손봉호 교수 강연을 함께 나눈다. – 미주 뉴스앤조이 편집자 주

저를 ‘목사 킬러’로 취급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서도 안수를 못받았습니다. 저같은 인격이나 신앙으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수 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성자였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세속적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복 한벌 입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했고, 나중에 그 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목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축복”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국개신교는 한국사회의 축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은 보수적인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정통 신학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적 신학에 입각한 교회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분야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복지가 대세인데, 이를 위해 가장 앞장 선 것은 기독교입니다. 해외의 어려운 사람을 돋는데도 단연 기독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굳네이버스’ 등은 모두 기독교 단체입니다. 얼마전 아프리카에 가니 한국 구호단체 일손이 얼마나 많은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개신교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세계에 12개의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얼마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돈으로 돋는 것이 아닌 가나안 농군학교같은 정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성인의 전수는 한국교회의 공헌”

교민들이 중심이 된 한인교회가 한국교회에 끼친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가 ‘지성인의 전수’입니다. 과거 수많은 지성인들이 유학을 와서 김치 먹고 싶어 교회에 갔습니다. 한인교회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매우 진취적이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놀랍게도 174개국에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사람이 진출해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가 지성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기독교가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이 인구에 2%였는데, 33인의 대표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애국자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김구식 선생들은 교회가 독립운동에 힘기울이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 리버사이드(Riverside)에 가면 안창호 선생 동상이 있는데, 가장 변화가에 안창호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존경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시민운동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1987년 한국 기윤실을 조직했는데, 민주화 이후 기윤실이 최초였고, 이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때 경실련 멤버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민운동가를 초청했는데, 그 유명한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식사합시다’ 하니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참석자들이 모두 장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운동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시민운동을 듭니다. 한국사회는 정부도 기업도 시민운동의 눈치를 봅니다. 지금은 많이 타락해서 권위를 잃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무시받는 소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공헌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성공이 실패의 원인”

신학교 다닐 때 하던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왜 코끼리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거기에 비스켓이 있어서’입니다. 한국교회의 강대상에 비스켓이 생겼습니다. 수도 많아지고, 정치적 세력이 커졌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한국사람이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권력입니다. 모두가 원하나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치권력입니다. 교회가 두려움과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 것 중 하나가 정치적 권력입니다.

전 한국교회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분중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분은 저의 고향사람으로 한때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장 당시는 그는 참 일을 잘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서울의 버스 제도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너무 내세웠는데, 별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돈, 권력, 인기가 생기니 코끼리가 강대상을 올라갔습니다. 순수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보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실패의 원인은 ‘성공’이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펍박받는 가난한 다수가 되었다면 돈, 권력, 명예에 초연하고 복음의 순수성에 집착했다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때문에 신앙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며, 샤머니즘입니다. 돈 많이 버는게 축복이고, 권력이 높으면 성공인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권력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교인수, 더 큰 예배당 추구하다보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사업체, 구멍가게로, 이상한 종교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직하면 돈 벌기 힘듭니다. 돈이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다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부정을 저지릅니다. 최근 성완종 장로, 이규태 장로, 박성철 장로가 대표적입니다. 박성철 장로는 참 경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성철 장로 회사에 가보고,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성공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단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다음으로, 한국교회는 단결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사를 모래알 같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식민 사관이 아닙니다. 일본에 수모를 당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었고, 힘이 없는 것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결하지 못한 것은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산 선생은 거짓말을 안하기 위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산은 분열, 거짓말에 한이 맷힌 사람이었습니다. 도산이 왜 미국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는 매우 정직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이유는 ‘욕심’과 ‘자기이익’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공의를 보지 못하고, 우선 나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 모양입니다. 한국교회는 갈라져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모든 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힘을 끼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에 집착하는 소인배적 사고방식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 안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기윤실이 실천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가 ‘자발적 불편운동’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내가 좀 편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교포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면 타협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황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 한국교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요즘 교회를 보면 ‘번영신학’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에 기윤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복음주의적 시민운동은 거의 기윤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윤실과 같은 단체들의 계속적인 비판적 주장을 통해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큰 교회, 현금 많은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거기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교회들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꽤 잘합니다. 요즘 분당 우리교회의 이찬수 목사가 존경받는데, 그분도 1.5세대 목사입니다.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온누리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들이 1.5 세대입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무너지긴 했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의 희망가운데 하나가 교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에는 한인교회의 책임이 동반합니다. 훨씬 더 건강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젠 한국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길 기다리기보다, 교포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개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개혁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대상에 비스켓이 없으면 코끼리가 강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봐야 세속적으로 아무 이익이 안생긴다’는 바로 그때 순수한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부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망한다고 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LA 기독교인들이 멋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일등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신사적이어야 존경받습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한국 크리스챤은 믿을만하다’라는 신임을 얻는게 애국이고, 후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인간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일등시민이 되십시오. 부디 가장 존경받는 일등시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전재허가: 2015.8.21

한인회 광복 70주년 기념식때 찍은 사진



이사장 소피아 Beenhouwer 인사



클로비스교회 이성희 목사의 순국열사 소개



현용규 원로목사의 기도순서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 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English Worship § 9:30 am-10: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 652-4627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 Albuquerque, 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화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4312 Coors SW (505) 877-2777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ABQ, NM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코너 1410 Wyoming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2 6631 Paradise Blvd. NW (505) 897-0088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주택융자 Loan Officer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부동산 Realtors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신장개업 2015.1.9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9411 Coors NE (505) 897-967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태권도 TaeKwonDo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월셋집 House for Rent 3 bedroom 2 bath. 즉시 입주 가능. 월세 \$950 보증금 \$950 위치: Montano and Coors근처. 건평: 1100 square ft. 문의 전화 (505) 220 9372. 류정남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한의사 Acupuncture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0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Park Fine Art Gallery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 87104 (505-764-1900)	카페/ 선물 Cafe/Gift -----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 87004 (505) 867-5838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2244 -----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3960 -----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87507 (505) 471-3206	식당 Restaurant -----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 88101 (575)762-8660
화원/원예 Nursery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종교 Church ----- 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575- 556-0200)	병원 Clinic -----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 88011 (575- 556-0200)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 87002 (505) 864-2242 -----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 87002 (505) 916-5656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사진관 Photo -----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 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산타페 Santa Fe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화밍تون Farmington ----- 종교 Church -----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 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백화점 Mart -----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상점 Store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단요가 Dahn Yoga -----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505-286-3535 www.dahnyoga.com	종교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광야의 소리는 PDF File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mail주소를 voiceofnm@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On-Line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종교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5년 9/10월호 발행일 : 2015.9.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지난호를 볼수 있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주소는: voiceofnm.kumcabq.com 입니다.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日本の食品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새 주소로 옮겼습니다 -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입니다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